

어명소 2차관, “GTX-A 조기개통에 만전” 당부

- 6일 연신내역 현장 찾아 철저한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주문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8월 종로구에 위치한 GTX-A 노선 5공구 TBM 터널 현장 방문 이후 1월 6일(금) 4공구 연신내역 건설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, 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.
- 어 차관은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받은 뒤, “지난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강조되었듯이 GTX는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어갈 획기적인 광역교통 서비스”이며,
 - 특히, “GTX-A는 수도권 교통 혁신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인 만큼 '24년 초 남측구간인 수서~동탄, '24년 하반기 파주~서울역 구간을 반드시 개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”고 하였다.
 - 아울러, “금년은 GTX-A 개통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해로써 지자체, 시공사, 국가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공사와 운영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이와 함께, “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진 시기”라면서,
 - “공사관계자 모두가 안전관리의 주체라는 경각심을 갖고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안전 분야에서도 각별히 노력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2023. 1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